

하늘나리



글 : 김재황(詩人)

사 진 : 김정명(寫眞作家)

學名 *Lilium concolor* var. *parthenion*

백합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산기슭에서 살고, 흰 색의 넓은 타원형인 인경과 마디가 없는 인편을 지닌다.

줄기의 높이는 60cm쯤. 잎은 어긋맞게 나며 선형(線形)이고, 길은 녹색으로 끝이 뾰족하다. 6월경에 짙은 붉은 빛의 꽃이 줄기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피는데, 꽃잎이 말리거나 젖혀지지 않는다.

열매는 긴 타원형의 삭과(蒴果)이고 3개로 갈라진다. 우리나라 각지와 중국, 동시베리아, 만

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메이어’라고 불리는 랍비가 있었다. 어느 안식일 날, 교회에서 설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귀한 보석을 맡겼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찌지요?”

랍비는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그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지요.”

그 말을 듣자, 랍비의 아내는 말을 이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보석을 하늘로 도로 가져 가셨답니다.”

랍비는 비로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는 몹시 슬펐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땅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는 땅나리는 그 화피 조각이 심하게 뒤로 말려 있어서 경망스러운 느낌이 드는 반면, 하늘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는 하늘나리는 그 화피조각이 젖혀지거나 말리지 않아서 경건함을 나타내고 있다.

기쁨을 머금고 하늘을 찬양하는 모습, 하늘나리는 분명히 믿음의 풀이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에 돌아가 안주할 곳은 바로 저 하늘이다. 하늘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윽히 우리를 내려다보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쓰다듬어 준다.

하늘이 아니라면 어디서 햇빛을 얻겠으며, 햇빛없이 어찌 우리가 먹을 곡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처럼 고마운 하늘이건만, 곧잘 우리는 하늘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산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들꽃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늘나리’.